묵담대종사가 남긴 선풍과 향훈은?

묵담대종사 간행물 봉정식 및 제1회 학술대회
11월 25일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강당서

묵담 스님은 한국 근현대불교사에 있어서 선 · 교 · 율을 겸비한 대종사였으며, 불교조계종 5 · 6 · 7세와 한국불교태고종 3 · 4세 종정을 역임한 선지식이다. 또한 해동율맥을 이은 제9대 율사이자 전계화상으로, 모든 불사에 작법증명하는 증명법사로 널리 알려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서옹 스님은 대종사에 대해 "조년에 출가해 선과 율의 공부에 일생을 바쳤을 뿐 아니라 불사의례문에는 가히 독보적 존재라 할 만큼 귀감이 되는, 즉 이사(理事)와 내외(內外)가 겸전한 당대의 선지식"이라고 평했다. 또한 범어사 석정 스님도 "선교양종을 겸수오증하고, 불타의 청정계맥을 계승해 많은 계단서 대소승계를 전수했으며, 모든 불사에 참증하고, 많은 재식과 기도의식을 여법히 지도하는 데 엄정했으니 그때마다 서상이 나타나 사부대중이 모두 불퇴전의 대신심을 발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묵담문도회는 스님의 가르침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을 간행하며 봉정식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1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강당서 봉행된다. 묵담대종사 봉정식에는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묵담문도회원인 제주 선광사 주지 수열 스님, 제주 금붕사 주지 수암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을 봉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제1부 대종사의 사상편과 제2부 대종사의 소장유품 연구편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사상편에는 대종사의 사상을 연구한 논문 9편이 수록됐고, 제2부 소장유품 연구편에는 연구 논문 5편과 불서 · 외서 1,664책의 목록을 담았다.

제1부 사상편의 연구논문은 이중표 전남대 교수의 〈묵담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김경집 진각대학원대학 교수의 〈근현대 한국불교와 묵담대종사〉,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의 〈묵담대종사의 전법〉, 김호귀 동국대 교수의 〈묵담선풍의 구조적 특징과 그 전개 고찰〉, 이자랑 동국대 교수의 〈묵담대종사의 율학과 행〉, 태경 스님(동국대)의 〈묵담대종사와 불복장의식〉, 안재철 제주대 교수의 〈묵담성우선사의 법명과 법호의 자전적 해석, 그리고 게송과 법어 등에 나타난 선사의 사상〉, 만춘 스님(동방문화대학원대학)의 〈묵담대종사의 예수재에 대한 연구〉, 박용진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의 〈묵담유물관 소장 범망경 및 계율 관련 불서의 현황과 의의〉가 실려 있다.


선교율을 겸비한 묵담대종사.

이어 제2부 소장유품 연구편에는 강선정 화엄사 성보박물관 학예사의 〈묵담대종사의 가사와 장삼〉, 정지희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사의 〈고종의 후궁 보현당 귀인정씨와 임상궁의 시주품〉, 박윤미 단국대 교수의 〈묵담유물관 소장 섬유류 유물〉, 유근자 동국대 교수의 〈묵담 스님과 담양 용화사 불교조각〉,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의 〈담양 용화사 불교회화의 특징과 의미〉가 실려 있다. 또한 이종수 순천대 교수가 조사해 소개한 목록으로는 〈묵담유물관 소장 근대 이전 불서〉(목판본 303책, 필사본 165책), 〈근대 이후 불서 목록(묵담대종사 필사 자료 포함)〉(977책), 〈중국 · 일본 불서 목록〉(147책), 〈외전 목록〉(72책)이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14명의 연구학자가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에 실린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묵담 대종사의 법랍 75년간 오득한 법륜에 대해서 한국 대표의 불교학자들이 학술적으로 정성스럽게 연구 발표하게 돼 묵담대종사의 '향기 사리'를 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김주일 기자



"10.27법난 진상규명, 국가적 관심 필요"

설정 스님, 11월 8일 도종환 장관 예방 자리서 강조

"10.27법난은 5.18광주 민주화 운동에 다음 가는 국가 권력의 인권 탄압 사건이다. 진상 규명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 자리에서 국가 차원의 10.27법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사진〉이 자리에서 설정 스님은 "군경 10만 명을 동원해 본사와 수말사의 스님을 끌어내 보안대로 끌고 가서 승복을 벗기고 고문했다. 나 역시 수덕사 주지 시절 충남도 보안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다"면서 "10.27법난은 국가가 민간에 저지른 잔악하고 간교하며 치졸한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난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없었다. '기록이 없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새 정부가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27법난 진상 규명에도 정부가 신경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비공개로 전환 후에는 설정 스님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제 행사인만큼 성공 개최를 위해 불교계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11월 7일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연등회를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종목'에 선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지현 · 사서실장 심경 · 기획실장 정문 · 문화부장 정현 스님을 비롯해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갑수 문체부 종무실장, 이상효 문체부 종무관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4차 산업혁명 기술 현재 어디까지 왔나

11월 21일 화요열린강좌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 불교계서도 이에 맞춘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강좌가 열린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11월 21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서 '4차 산업혁명, 어디까지 왔나-통찰의 눈으로 바라본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기술들'이라는 주제로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에서는 임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저서 〈4차 산업혁명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소개한다.

임일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대(USC) 경영대학에서 정보시스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러트거스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뉴저지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플랫폼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공저), 〈R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 등이 있다. 윤호섭 기자


어느덧 동장군이 성큼 다가왔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겨울나기를 준비하지만 소외계층은 더없이 힘든 계절이다. 그래도 낙담하긴 이르다. 아름다운동행이 연탄과 함께 찾아간다. 사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원들이 연탄 모형을 들고 동참을 독려하는 모습. 사진=아름다운동행

연탄 들고 찰칵, 자비심 '물씬'

아름다운동행, 캠페인 시작… 사진콘테스트 진행

추운 겨울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심이 소외계층을 다시금 찾아간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설정)은 11월 7일 '2017년 아이연탄맨' 선포식을 개최했다. 아이연탄맨 기부캠페인은 4년째 이어지는 기부 행사로써 연탄 기부를 릴레이로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올해 아이연탄맨 연탄기부는 사진콘테스트가 함께 진행된다. 연탄기부에 동참한 참가자들은 카카오톡 아름다운동행 플러스친구나 아름다운동행 스마트폰(010-7376-9595)으로 사진을 보내면 자동 접수된다.

아이연탄맨 연탄기부 동참은 양손으로 따뜻한 연탄불을 2명에게 쏴주고, 연탄불을 받은 사람들은 ARS(060-700-0011, 한 통화 5000원, 연탄 5장 기부) 혹은 아이연탄맨 계좌(KB국민은행 023537-04-0044302)로 기부하고, 각각 다른 두 사람에게 불을 쏘면 된다. 캠페인은 2월 28일까지 지속되며 12월 12일에 연탄 기부 전달이 시작된다. (02-737-9595) 노덕현 기자

지친 수험생, '쉼' 있는 산사로 오세요

조계종 교육원, '고3 위한 산사청춘캠프' 진행

강화 전등사 · 양양 낙산사서
11월 23 · 30일까지 각각 접수

지난 1년간 학업 스트레스로 고생했을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산사 캠프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강화 전등사와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양양 낙산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고3을 위한 산사청춘캠프(이하 산사 캠프)'를 개최한다.

산사 캠프에는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는 청춘들을 위한 명사들의 특강이 준비돼 있다. 내비둬 콘서트 진행자 일감스님을 비롯해 광고인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대표, 김선우 시인이 고민과 세상이야기, 문학과 사랑 등에 대해 강의하고 청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맛있는 사찰 음식과 바다 · 산 트래킹은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서해 일몰과 강화도의 역사 ·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등사 산사 캠프는 오는 11월 23일까지, 동해 일출과 설악산을 탐방하는 낙산사 산사 캠프는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각각 50명이며, 신청서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10대 청소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길에 접어드는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산사 캠프를 준비했다"면서 "쉼과 자유, 행복의 인생길을 찾고자 한다면 '산사청춘캠프'를 노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02)2011-1803 신성민 기자

